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정 익 중**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비행의 경험 측면, 예측 요인 측면, 비행경로 측면에서의 성별차이를 분석하였다. 청소년패널 내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51.9%, 남자청소년의 49.7%가 14가지 종류의 비행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기보고식 비행경험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의 예측 요인 측면에서도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분리된 모형에서의 일련의 회귀계수가 동등한지 상이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Chow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집단으로 동일 모형을 구성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이 청소년 비행에 이르는 경로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두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차이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매개하였다.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반해 남자청소년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별로 상이하게 작용하여 비행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청소년 비행예방 및 교정을 위해서 이러한 남녀청소년의 경험적 특수성을 프로그램에 일부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성별 차이, 청소년비행,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공격성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I. 문제제기

우리나라 청소년비행 관련 공식자료인 대검찰청 청소년범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을 남자청소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비행은 남자청소년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성별로 분리해 청소년범죄자의 점유율 증감을 분석해 보면 상이한 경향성을 알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에서 남자청소년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되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범죄의 발생추이는 1997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자 청소년범죄자의 절대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1994년에 6.2%이던 여자 청소년범죄자비율이 2002년에 16.6%로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이렇게 검거되어 공식기관에 보고된 범죄가 아닌 사소한 비행을 포함한 적발되지 않은 ‘숨은 범죄’까지 반영하여 살펴본다면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심각하리라 예상된다.

청소년비행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주로 남자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Chesney-Lind, 1989). 따라서 여자청소년 비행에 대해 이러한 이론들이 가지는 설명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비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도 비행을 주로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남자청소년들을 주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남자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과 연구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여자 비행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유성경, 2002). 또한 비행에 대한 개입전략도 주로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된 이론 및 기법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자청소년 비행율의 급증 경향은 여자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전략들이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자청소년 비행의 특수성을 포함한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

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연구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비행의 성비(gender ratio) 문제로,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사이의 비행 경험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적게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는 비행의 일반화 문제로, 청소년비행의 예측요인이 성별에 따라 상이한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Daly & Chesney-Lind, 1988). 이 두 가지 연구문제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후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첫째, 청소년패널의 중학교 2학년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사이의 비행 경험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둘째,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셋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비행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비행은 남자의 영역이라는 가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적인 분석방법처럼 남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비행을 연구하거나 여자청소년의 비행문제를 남자청소년 비행 속에 포함시켜 성별을 주된 독립변수로 간주하기보다는 통제변수의 일부로만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비행의 성별 차이 문제를 희석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여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비행 여자청소년이나 여자수형자를 중심으로 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그 결과를 대다수 여자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률표집된 청소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에서의 성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성별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비행에서의 성별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남자 비행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만이 비행관련 프로그램의 전부인양 비취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자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특히 일반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도 남자청소년의 비행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은 남자청소년과 달리 독특할 것이라는 입장, 두 가지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먼저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도 남자청소년의 비행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남자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비행이론들을 여자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성별 공통원인을 발견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비행이론인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차별접촉이론, 자기통제이론 등에 근거하여 부모의 모니터링, 부모와의 애착, 학교애착심, 학업성취, 비행또래 집단과의 접촉, 공격성 등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런 요인들이 여자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Moffitt, Caspi, Rutter, & Silva, 2001; Fergusson & Horwood, 2002; Liu & Kaplan, 1999). 이러한 연구들은 비행의 발현 정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비행 원인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인에의 노출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는 남자 비행청소년들이 생애주기 만성형(life-course persistent)

집단¹⁾에 더 많고 여자 비행청소년들이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 집단에 더 많아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에는 신경심리계의 손상(neuropsychological deficits)과 부모의 강압적 훈육이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은 청소년이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또래집단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ffitt, 1993; Patterson, 1996; Chung, Hill, et al., 2002). 이렇게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과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 사이에는 그 원인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남녀간에는 원인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Fergusson, & Horwood, 2002).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과 다른 요인에 의해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은 기존 이론의 틀 내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수를 경험적으로 발견하려는 연구와 새로운 이론으로 성별 특수적(gender specific) 요인을 이론적으로 도출하려는 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들을 발달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관련 요인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들이 많지만(Owens, 1994), 낮은 자아존중감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 Thornberry, 1998).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 경험이 차후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도

1)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은 아동기 초기에 비행의 조짐을 보이다가 점점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일생 동안 계속 다른 형태 혹은 더 심각한 형태의 비행과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Moffitt, 1993; Patterson, 1996; Chung, Hill, et al., 2002; Chung, Hawkins, et al., 2002). 반면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은 통계적으로 비행빈도가 높아지는 아동기 말기나 청소년기 초기에 비행을 저지르다가 청소년기 내에 비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Fergusson, Horwood, & Nagin, 2000; Patterson & Yoerger, 1997).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남자청소년에게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Kaplan, 1978; Rosenberg & Rosenberg, 1978). 왜냐하면 남자청소년 비행의 허용 정도가 더 높고 여자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 남자청소년이 비행 여자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유성경, 2002). 또한 남자청소년들은 주로 공격성이나 충동성으로 문제를 외현화하는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내면화한다. 특히 외현화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양육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이 남자일 경우 이러한 반응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남자청소년의 공격성은 또래집단의 부정적인 반응과 성인들의 처벌을 더 많이 불러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반응들은 시간이 갈수록 비행문제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Rutter, 1990).

2) 가족관련 요인

여자청소년들은 집에서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Montemayor, 1982; Maccoby, 1986; Siegel & Senna, 1994) 남자청소년보다 부모의 모니터링, 부모와의 애착, 가족갈등, 부모의 학대 등과 같은 가족관련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Dornfeld & Kruttschnitt, 1992; Funk, 1999; 김준호·김은경, 1995). 남자청소년에게는 부모와의 애착이 비행과 관계가 없었지만 여자청소년은 부모와의 낮은 애착이 비행과 연결되었다(Fagot & Kavanagh, 1990). 이렇게 여자들은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붕괴되었을 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남자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서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유성경, 2002; 김성경, 2003; Brezina, 1998; Covington, 1998; Funk, 1999; Luthar, 1999). 이는 대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높은 여자청소년이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가출, 비행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위험요인이다(Artz, 1998; 김성경, 2003).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행 여자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적 학대의 경험율은 40%에서 70%까지 이르고 있다(Chesney-Lind & Sheldon, 1998). 특히 성적 학대는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여자청소년의 비행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준호·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성장할 경우 부정적인 자아개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보다는 가정 외부에서 탈출구를 찾게 된다. 이러한 학대로부터의 탈출은 종종 가출로 이어진다. 사회는 이러한 유형의 여자청소년의 가출과 이어지는 성매매를 여자청소년의 비행으로만 간주하여 그들이 이전에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성적인 방탕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 Chesney-Lind(1989)는 이러한 현상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청소년의 생존전략을 범죄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신체적, 성적 학대의 경험은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애정이 부족한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나아가 타인들에 대한 폭력의 사용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

여자청소년이든 남자청소년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는 청소년비행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ankin, 1980). 여자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취가 낮으면 폭력집단(gang)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반해 남자청소년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Esbensen & Deschenes, 1998). 또한 반대로 남자청

소년의 높은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을 높여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여 비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Heimer, 1995). 학교애착심의 경우도 여자청소년에게서 민감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집단에 가입한 여자청소년이 폭력집단에 가입하지 않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학교애착심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청소년은 폭력집단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애착심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Esbensen & Deschenes, 1998). 마지막으로 비행또래집단과 관련해서는 성별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행또래집단과의 접촉은 비행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이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김준호·김은경, 1995).

이렇게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경험적인 연구에서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주장이 한국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2.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

기존 이론의 틀이 아닌 새로운 이론으로 성별 특수적(gender specific) 요인을 도출하려는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Hagan의 권력통제이론²⁾이 있다. 남자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 이론들과 달리 권력통제이론은 성역할 사회화와 같은 여자청소년의 비행만을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요인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가부장적 성역할 사회화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비행의 억제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비행의 유발

2) 권력통제이론은 페미니즘이론, 갈등이론, 통제이론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행차이를 가족구조(가부장적, 평등적)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이론이다(이성식·전신현, 2001).

효과도 가질 수 있다(이성식·전신현, 2001). 비행 억제효과는 가부장적 가정의 여자청소년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내면화로 인해 비행가능성이 낮지만 평등적 가정에서 자란 여자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내면화하지 않아 비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권력통제이론의 가설에 의해 주장된다. 반면 비행 유발효과는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란 여자청소년들이 평등적 가정에서 자란 여자청소년들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불만과 불평등한 가족관계 내에서의 착취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것이 비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가설에 의해 주장된다. 이 두 가지 주장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역할 고정관념의 청소년비행 억제효과

권력통제이론은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차별적 감독과 통제 때문에 비행의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Hagan, Gillis, & Simpson, 1985; Hagan, Simpson, & Gillis, 1987). 즉 여자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철저한 감독과 통제를 받아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보다 비행의 가능성이 낮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귀가시간이 엄격하게 주어지고, 그들의 활동이 더 엄격하게 지도감독 된다(Belknap, 1996; Gilligan, Ward, Taylor, & Bardige, 1988; Hagan, Gillis, & Simpson, 1988). 또한 가부장적 양육태도는 남자청소년의 비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여자청소년의 비행 감소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준호·김은경, 1995). 이는 여자청소년 행동에 대한 가정의 비공식적 통제도 여자청소년의 비행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자청소년들은 보다 강인하게 키워지고 용감성을 내면화하게 되지만, 부모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자라나는 여자청소년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키워진다. 이중적 기준을 사용하여 여성의 비행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여성에게 기대되는 순

중의 가치를 위배하는 경우, 공식적·비공식적인 비난과 통제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 여성들은 훨씬 더 가혹한 반응을 받게 된다. 이는 여성이 비행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기제가 된다. 이렇게 여자청소년들 스스로 처벌의 위협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행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최근의 여성 범죄 및 비행의 증가를 여성이 보다 남성적인 특성이나 성평등 의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다(Hien & Hien, 1998).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탈피하고 성역할 태도에 변화를 가져와 남성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던 비행이나 범죄에 여성들이 가담하게 되었고,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사회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이 때문에 여성범죄의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 비행의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변수인 성역할 태도를 도입하였다. 예컨대 여성은 집안 살림과 자녀양육, 남성은 직장 등 사회진출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을 여자청소년들이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따라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주장인데,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자청소년은 비행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청소년은 비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Heimer, 1996; Simpson & Elis, 1995).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자청소년에게 비행은 법을 어기는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행을 자제하게 된다. 반면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는 남자청소년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나 공격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Heimer & De Coster, 1999).

2) 성역할 고정관념의 청소년비행 유발효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항상 여자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아

니다. 남자는 지배해야 하고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은 반대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허용하고 묵인하도록 방조한다. 이는 여자청소년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주어 폭력적인 이성과의 학대적인 관계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여 비행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Chesney-Lind & Shelden, 1998).

권력통제이론에 따르면 가족이 여자청소년을 감독하고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지만, 부모의 지나친 감독·간섭·통제는 반대로 여자청소년에게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자청소년들의 사소한 비행도 심각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반항할 때는 엄한 처벌이 부여된다(Bursik, Merten, & Schwartz, 1985; Kavanagh & Hops, 1994). 이러한 경우 여자청소년들은 반발하여 가족에 불만을 갖게 되며, 집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가정환경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한 여자청소년들은 심지어 가출을 하여 다양한 비행기회에 노출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Chesney-Lind & Shelden, 1998). 대부분의 여자 비행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가정에 대한 불만이 크거나 부모와의 애정이 크게 약화되어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Chesney-Lind, 1997; Chesney-Lind & Shelden, 1998; Gilfus, 1992). 이성식과 전신현(2001)은 불평등한 남녀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정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3) 성역할 고정관념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여자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려는 기존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청소년 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고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자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극과 반응의 시스템적인 관점에만 치중한 채 실제 과정은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블랙박스’로 처리된다. 이러한 접근은 과정과 메커니즘은 숨겨진 채 입력과 출력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야 하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자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던 변수였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자청소년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두 가지 변수를 매개변수로 검토해보았다. 남자청소년은 비행을 남자다움이라고 간주하는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고 여자청소년은 그 반대로 길러진다. 또한 성인들은 남자다움의 비행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관대한데 반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때문에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자라난 여자청소년은 내재화된 성역할 규범을 가지게 되고 이 규범이 비행을 억제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잘 따르고 있는 경우 본인의 비행적인 성향이나 공격적인 모습을 자제하게 되고 순종적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주류 준거집단(가족, 친사회적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수용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주류 준거집단의 기준인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잘 따르지 못해 그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자아존중감의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비행행동을 통해 비행또래집단과 교류하면서 자아존중감³⁾을 회복하기 시작한다(Mason, 2001; Jang & Thornberry,

3) 자아존중감은 사회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면서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비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비행의 원인으로만 간주되어온 경향이 있다. 자아존중감과 비행 간의 관계는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 쌍방향적인

1998). 따라서 비행은 주류 준거집단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생긴 자아존중감 저하를 방어하기 위한 적응적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남자다움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의 공격성, 지배성, 경쟁성 등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이러한 행동은 주류 준거집단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진다. 또한 본인의 행동과 주위의 반응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자청소년도 주류 준거집단에 의해 자아개념이 위협받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면 이러한 존중감 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게 된다. 이때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생각되는 비행또래집단과 교류하게 되고 주류집단의 부정적인 평가는 비행또래집단의 긍정적인 평가로 치환되면서 점점 비행또래집단이 중요한 타자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행은 확대·재생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매개변수를 반영한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이경상 외,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3년도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비행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Kaplan(1978, 1980)의 자기확대(self-enhancement)가설에 의하면 비행은 자아존중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여 층화 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청소년 및 그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모의 경우에는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3,697명 가운데 93.3%인 3,449명의 경우에는 학생조사와 학부모 조사 모두를 성공하였고, 이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여학생은 1,724명(50%), 남학생은 1,725명(50%)이었고, 연령별로는 13세 이하 9명(0.3%), 14세 2,691명(78%), 15세 749명(21.7%)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603명, 17.5%), 경기(777명, 22.5%), 경남(370명, 10.7%), 부산(291명, 8.4%), 인천(226명, 6.6%), 경북(189명, 5.5%), 대구(129명, 3.7%), 광주(136명, 3.9%), 강원(123명, 3.6%)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939,200원으로 2004년 2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2,970,948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자기보고식 청소년 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의 총 14가지 비행을 나열하고 여기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비행 유형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변환하여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청소년비행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변수에 포함된

문항들의 측정방식은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이다. 독립변수의 경우 대부분 변수에 포함된 최소 2개에서 최대 8개의 각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문항수와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각 변수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표 1>에서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신뢰도 계수는 학교애착심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신뢰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측정변수

구분		문항수	신뢰도
종속변수	청소년비행	14	.71
개인관련 요인	성역할 고정관념	6	.71
	자이존중감	5	.72
	공격성	6	.77
가족관련 요인	부모 모니터링	4	.85
	부모와의 애착	6	.86
	부모의 학대	2	.76
	가족 갈등	2	.75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	학업성취	5	.79
	학교애착심	5	.61
	비행 또래집단	8	.82

성역할 고정관념 변수는 여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포함하였다. 먼저 여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남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 변수는 6개 항목들의 평균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철저한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는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의 6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모니터링 척도는 부모가 자녀들을 어느 정도 감독하는지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외출했을 때 부모가 자식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언제 돌아올지 아는 정도로 모니터링 수준을 측정하였다. 5점 척도에 대답한 각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철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재는 문항은 총 6개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 부모가 애정을 보이는 정도, 대화를 자주하는 정도, 서로를 잘 이해하는 정도 등을 묻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대 척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난폭한 언행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상적인 의미의 학대라기보다 가혹한 훈육에 가까운 것이다. 학대도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는 것이므로 가혹한 훈육이 정도를 넘어 최고 점수를 얻는다면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대에 근접한 것을 의미한다.

가족 갈등 척도는 부부가 서로 간에 욕설을 하거나 구타를 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인 청소년이 부모님의 난폭한 언행사용 정도를 보고한 2문항,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와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내 갈등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 변수는 청소년들 자신이 보고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영역에서의 반 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성적이라기보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애착심 척도는 학교 공부에 흥미가 있는지, 학교 숙제를 잘 하는지,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지 등의 5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행또래집단의 존재여부는 근신·정학·퇴학,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갈취, 절도 등의 8가지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가 주위에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매우 친한 친구들 중에 몇 명 정도가 8개의 비행과 관련되는지를 각 비행별로 ‘매우 친한 친구들의 수’에 대한 비율로 변환하여 0(한명도 없음)과 1(모두 관련됨)사이의 점수로 계산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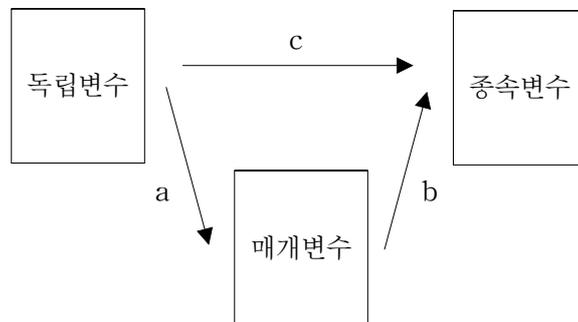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응답자인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결혼가정 여부, 가정의 월평균 소득총액, 가구원 수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형태를 측정하는 결혼가정 여부는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0, 그렇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총액은 가정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을 만원 단위로 조사하였다. 이 변수가 분석모형에 투입될 때에는 가구규모별 욕구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가구원의 수로 측정되는 가구규모 변수가 함께 투입된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앞에서 언급된 다른 변수들과 달리 모두 부모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이다⁴⁾.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비행에서 남녀별 경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chi-square) 검정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과 비행 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로 상이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분리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성별로 분리된 모형에서의 일련의 회귀계수가 동등한지 상이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Chow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Chow, 1960). 첫째, 남녀청소년을 통합한 전체집단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구소득 등을 응답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구의 정확한 수입을 알지 못해서 측정오류가 많았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학생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화면접 형식으로 직접 물어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을 대상으로 하나의 회귀식을 추정하여 RSS(residual sum of squares: 오차제곱합)를 구하고 이를 S1로 놓는다. 둘째,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구분하여 개별 회귀식을 추정하고 이 때의 RSS(오차제곱합)를 각각 S2와 S3으로 놓는다. 셋째, S4는 S2와 S3의 합으로 계산되며 S5는 S1-S4로 계산되어 Chow 검정을 하게 된다. 검정은 $F = (S5 / k) / \{S4 / (n1+n2-2k)\}$ 공식(여기서 n1은 남자청소년의 표본수, n2는 여자청소년의 표본수, k는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수)을 통해 계산된 F값이 자유도 (df)= (k, n1+n2-2k)에 대한 일정 유의수준에서의 F임계값 보다 크면 남자와 여자 회귀식의 일련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회귀계수는 다르며 성별 간에 상이한 모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계산된 F값이 F임계값 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수용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 회귀식의 일련의 회귀계수가 동등하며 남녀를 하나의 전체모형으로 통합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⁵⁾.



[그림 1] 매개모형

또한 자아존중감, 공격성 변수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mediating variable)로서 기능하는지를 일련의 다변

5) Chow 검정에서 F공식의 분자는 남녀를 합쳐서 하나로 분석했을 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고 분모는 남녀를 구분해서 따로 분석했을 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한다. 이 둘의 크기에 따라 영가설을 기각할지 채택할지가 결정된다.

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를 따라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한 변수가 매개변수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매개변수를 제외한 모형에서 독립변수(성역할 고정관념)와 종속변수(청소년비행) 사이의 관계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고, 독립변수(성역할 고정관념)와 매개변수(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 추정치인 a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회귀하였을 때 매개변수(자아존중감)와 종속변수(청소년비행) 사이의 관계의 추정치인 b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성역할 고정관념)가 매개변수(자아존중감)를 통해서 종속변수(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야 한다. 이 간접효과는 [그림 1]에서 a*b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는 간접효과(a*b)를 이의 표준오차인 $\sqrt{a^2s_b^2 + b^2s_a^2 + s_a^2s_b^2}$ 로 나누어 얻은 t값을 이용한다. 여기서 Sa는 a의 표준오차이고, Sb는 b의 표준오차이다. 이 공식을 통해 얻은 t값이 1.96 이상이면 5% 수준에서, t값이 2.58 이상이면 1% 수준에서 매개변수로 인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림 1]에서 c가 0이 된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매개변수에 의해 완전하게 매개되었음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1. 비행경험의 성별 차이

여자청소년의 전체적인 비행경험을 살펴보면(<표 2>), 48.1%는 전혀 비행경험이 없고 51.9%가 14가지의 비행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49.7%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들은 14가지 비행 중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갈취, 절도, 원조교제, 집단따돌림, 성폭행·성희롱 등 8개에서 남자청소년보다 경험자수가 더 많았다. 그 중 음주, 무단결석, 원조교제, 집단따돌림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경험자수가 더 많은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은 폭행, 패싸움, 조소·조롱, 협박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자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험한 비행의 종류에 있어서는 성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비율이 높아 비행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비행경험 유무

	여자 경험자수 (%)	남자 경험자수 (%)	χ^2 값
흡연	236 (13.7)	222 (12.9)	.50
음주	675 (39.2)	382 (22.1)	117.36***
무단결석	97 (5.6)	70 (4.1)	4.60*
가출	69 (4.0)	70 (4.1)	.01
성경험	16 (0.9)	22 (1.3)	.95
폭행	96 (5.6)	214 (12.4)	49.28***
패싸움	80 (4.6)	107 (6.2)	4.11*
갈취	106 (6.1)	83 (4.8)	2.98
절도	129 (7.5)	110 (6.4)	1.64
원조교제	5 (0.3)	0 (0.0)	5.01*
조소·조롱	164 (9.5)	348 (20.2)	77.53***
협박	54 (3.1)	94 (5.4)	11.27***
집단따돌림	309 (17.9)	180 (10.4)	39.74***
성폭행·성희롱	7 (0.4)	4 (0.2)	.82
적어도 한 개 비행 경험	895 (51.9)	858 (49.7)	1.63

* p<.05, *** p<.001

다음으로 청소년비행 척도를 구성하여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3>). 남자청소년이 1.10개의 비행종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은

1.19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이 좀 더 많은 종류의 비행
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비행을 그 유형(6)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3>) 지위비행과 폭
력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 여자청소년은 흡연,
음주, 가출 등과 같은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
자청소년은 폭행, 패싸움 등과 같은 폭력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물비행이나 성비행 측면에서는 성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비행척도 차이

	여자 평균 (표준편차)	남자 평균 (표준편차)	t 값
청소년비행척도	1.19 (1.75)	1.10 (1.59)	-1.40
지위비행	.62 (.90)	.43 (.76)	-6.84***
폭력비행	.41 (.84)	.55 (.92)	4.61***
재물비행	.14 (.41)	.11 (.36)	-1.85
성비행	.02 (.14)	.02 (.12)	-.26

*** p<.001

2. 비행 예측요인의 성별 차이

성별에 따라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있으
며 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공격성), 가족관련 요인(부모 모니터링, 부
모와의 애착, 부모의 학대, 가족갈등),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학업성
취, 학교애착심, 비행또래집단),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모두 함께 투입하고

6) 지위비행이란 성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적 지위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무
단결석, 가출 등으로 측정하였다. 폭력비행은 폭행, 패싸움, 조소·조롱, 협박
등으로, 재물비행은 갈취, 절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비행은 성경
험, 원조교제, 성폭행·성희롱 등으로 측정하였다.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표 4>). 이 분석은 청소년비행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고,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비교를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고하였다.

<표 4> 성별에 따른 청소년비행 예측요인의 차이+

구분	독립변수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
개인관련 요인	성역할 고정관념	.23**	.18
	자아존중감	-.00	-.04
	공격성	.19***	.19***
가족관련 요인	부모 모니터링	-.07**	-.04
	부모와의 애착	.01	.00
	부모의 학대	.11***	.11***
	가족 갈등	.04	.00
학교 및 또래집단 관련 요인	학업성취	-.15	-.20*
	학교애착심	-.07***	-.12***
	비행또래집단	.49***	.44***
사회인구학적 변수	결손가정 여부	-.01	-.01
	월평균 소득	.01	-.01
	가구원 수	-.01	-.02
Adjusted R ²		.44	.35

* p<.05, ** p<.01, *** p<.001

+ 각 셀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

먼저 이 변수들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여자청소년 모형(adj. R2=.44)에서 남자청소년 모형(adj. R2=.35)보다 더 높았다. 성별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개인관련 요인인 공격성, 가족관련 요인인 부모의 학대,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인 학교애착심, 비행또래집단과의 교류로 나타났다⁷⁾. 개인 기질상 공격적 성향이 높고, 가정내에

7) 폭행, 패싸움, 갈취, 절도, 협박 등 심각도가 높은 중(重)비행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 부모의 학대가 있으며 학교에착심은 낮고 비행또래집단과 자주 어울리면 남녀청소년 모두에게서 비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관련 요인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족관련 요인인 부모 모니터링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에만 영향을 주는 성별 특수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경우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지도감독이 철저할 경우 여자청소년 비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성별 특수적 요인은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인 학업성취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우 남자청소년의 비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과 부모의 학대경험에 대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청소년에게는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남자청소년에게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에게만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이 여자청소년 비행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녀청소년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가 학대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학대의 심각도가 높은 문항이나 성적 학대 관련 문항이 포함되면 다른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도 있다.

예측요인의 성별 차이를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성별로 분리된 모형에서의 일련의 회귀계수가 동등한지 상이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Chow 검정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22로 나와 자유도 (13, 3423)에 대한 유의수준 .05에서의 F 임계값인 2.21보다 적어서 두 모형의 회귀계수 간에 차이가 없음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성별로 분리된 모형에서 몇 개의 성별 특수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집단으로 동일 모형을 구성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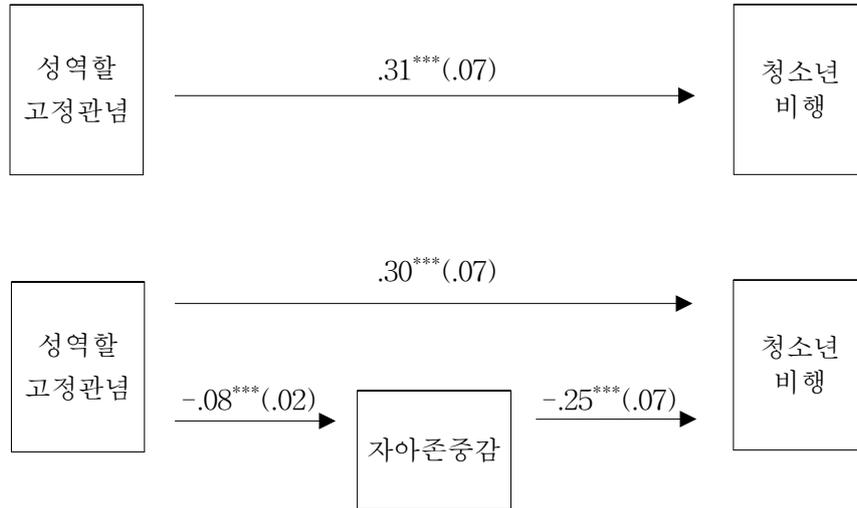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변량이 적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3. 성역할 고정관념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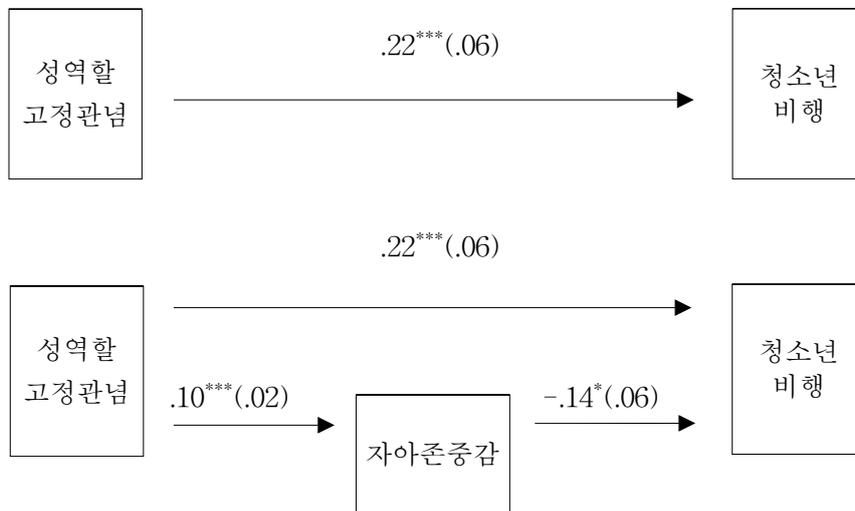
전술한 다중 회귀분석은 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볼 때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다변인 분석이긴 하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단선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단선적이라기보다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내재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단선적 검토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성별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관련 이론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탐색적 차원에서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하에서는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두 변수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추정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든 분석모형에서 앞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통제변수로서 포함되었지만, 본 연구의 목적상 이들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계수는 t값 공식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계산을 위해 비표준화된 수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에서 매개 변수로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경로모형을 산출하였다([그림 2]). 여자청소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비행 모형에 자아존중감을 첨가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회귀계수는 .31에서 .30으로 떨어졌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의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계수=-.08)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t값 공식을 이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존재를 검증한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61$).

A. 여자청소년



B. 남자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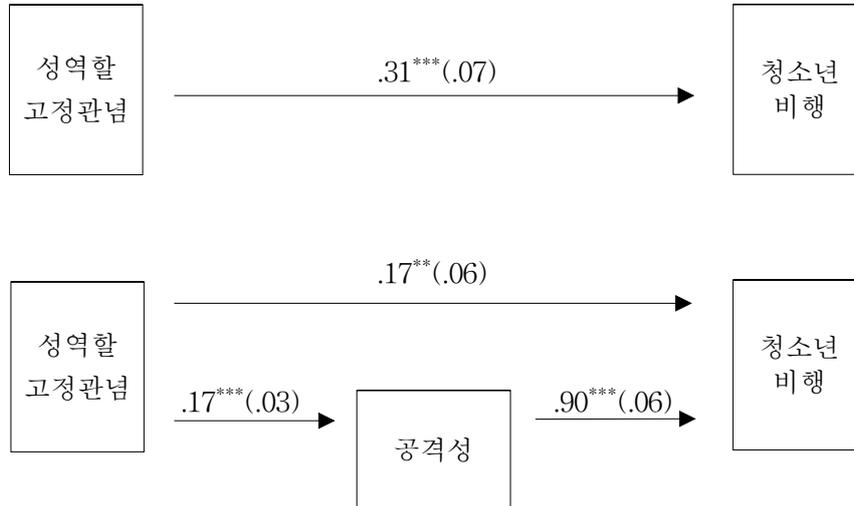


[그림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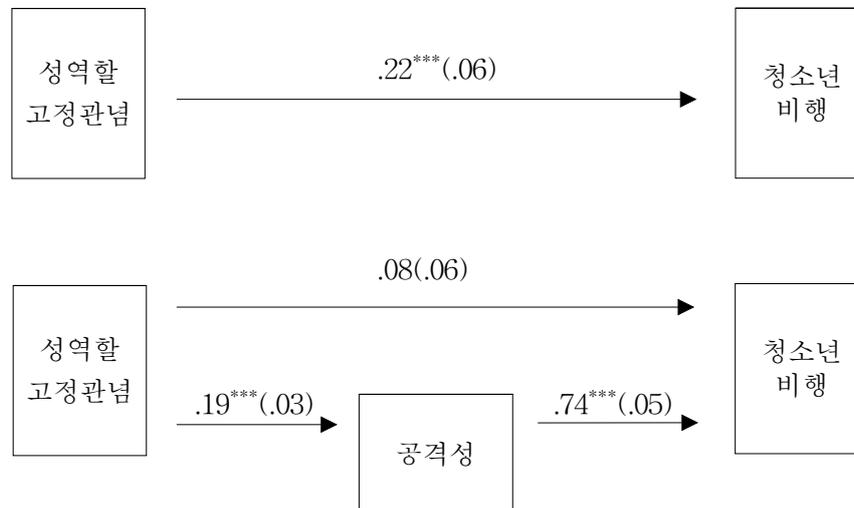
남자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비행 모형에 자아존중감을 첨가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회귀계수는 변화가 없었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청소년의 경우보다 통계적 유의정도는 낮았다.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의 결과에서는 여자청소년과 전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계수=.10)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에게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청소년에게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08$).

다음으로 공격성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그림 3]). 먼저 여자청소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소년비행 모형에 공격성 변수를 첨가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계수는 .31에서 .17로 크게 감소하였고 유의수준도 떨어졌다. 공격성은 청소년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계수=.90)를 보였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계수=.17)를 보였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공격성을 통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29$). 공격성이 남자청소년에게만 성역할 고정관념과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예상과 달리 여자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변수에 공격적인 행동 지표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생각이나 태도와 관련된 지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여자청소년의 경우도 지나친 통제와 반작용으로 공격적인 생각이나 태도 측면에서는 충분히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A. 여자청소년



B. 남자청소년



[그림 3] 공격성의 매개효과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비행 모형에 공격성을 첨가하자 여자청소년의 결과와 달리 성역할 고정관념의 계수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여자청소년과 비교하여 남자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많은 부분 공격성을 통해 매개되어 비행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결과는 여자청소년의 결과와 유사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공격성을 통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여자청소년 결과와 동일하게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t값은 여자청소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5.81$).

성역할 고정관념 변수에는 여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둘 다 포함되어 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니라 남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용한 모형에서,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여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용한 모형에서 위의 결과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더 클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수준도 높았다. 이는 반대의 성(性)보다 본인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높을수록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본 논문에 그림으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교신저자에게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비행의 경험 측면, 예측요인 측면, 비행경로 측면에서의 성별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패널 내 중학교 2학년 여자청소년의 51.9%, 남자청소년의 49.7%가 14가지 종류의 비행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기보고식 비행경험에 있어서는 대검찰청의 청소년범죄 공식통계에서처럼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비행 예측요인에 있어 공통요인이 많이 존재하여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별로 독특한 예측요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부모의 학대, 학교애착심, 비행또래집단은 성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비행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모니터링,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성별 특수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는 남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성별 특수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측요인의 성별 차이를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Chow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 분리된 모형에서의 일련의 회귀계수가 서로 동등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 집단을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집단으로 통합하여 동일 모형을 구성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매개변수를 포함한 경로모형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 모형과 남자청소년 모형 둘 다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모두 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모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성별 차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반해 남자청소년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공격성을 통해 매개되어 비행으로 발현되는 정도가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비행의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나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청소년비행의 경험 측면이나 예측요인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여자청소년 2명 중 1명이 사소한 지위비행을 포함한 비행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경험할 정도로 여자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비행은 남자청소년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비행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여자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비행관련 프로그램의 2.3%만이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Chesney-Lind & Shelden, 1998). 이는 남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자 비행청소년에게도 성공적으로 잘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물론 성별 공통요인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막기 위한 분노조절훈련(anger management training)이나 일시적 만족을 위한 충동적 행동을 자제시키는 자기통제훈련, 부모의 학대를 막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교애착심을 키우고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학교준비프로그램(school readiness program), 비행또래집단의 압력이나 동조의 영향을 막기 위한 거절기술훈련(social resistance skills training) 등이 성별과 관계없이 비행예방에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 성별 특수적(gender specific)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만약 외출을 하더라도 외부에서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이 부모에게 노출되어 모니터링될 경우 이러한 비행억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부장적 가족을 통해 전통적 성역할이 강제되는 것이 여자청소년에게 불만과 긴장을 낳았고 이것이 비행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이성식·전신현,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이 아닌 남녀평등 의식을 갖는 여자청소년이 비행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권력통제이론의 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반면 학업성취는 남자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성별 특수적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에게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도 높고 이러한 성공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여 학

업성취가 높으며 비행도 자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성별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성별 차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게 상이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여 비행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점이다. 밖으로 표출된 행위가 유사하더라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자에게 더 높게 나타나지만 남자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의 독립적 영향력은 낮고 공격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상당 부분 매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자청소년에게는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자청소년에게 불필요한 내적 갈등을 낳아서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낮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적응적 반응으로 비행이 나타나게 된다.

비행 여자청소년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비행 여자청소년들의 경험적 특수성을 파악하여 교정과 치료의 자원으로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문제제기를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여자청소년에게 더 시급하게 요청되며 이러한 양성평등교육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자녀를 성차별적으로 훈육하거나 사회가 성별에 따라 성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이러한 개인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자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자청소년 개인에 대한 개입을 넘어서 성차별적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자청소년 중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고위험집단을 선택하여 성인지적 자기주장훈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도 비행예방 프로그램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비행을 유발하기

쉬운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남녀청소년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각 성별에 적절한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비행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행동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인과관계의 방향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반대로 비행 경험이 본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춘화·윤옥경, 2003). 즉, 여자청소년들 중에서 자신이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역작용으로 성역할에 대해 더 보수적인 견해를 채택하거나 체념적 반응으로 스스로에 대해 더 이상 염전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횡단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반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비행경험이외에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의 규명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바뀌어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이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aplan, 1978, 1980)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ecarthy & Hoge, 1984; 김희화·김경연, 2000)도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횡단적 자료를 가지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 간에 어떠한 형태의 인과관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히 밝혀지도록 차후의 패널자료와 종단적 접근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청소년비행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

존중감 등 여러 가지 영역을 반영하는 다양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Pope, McChale, & Craighead, 1988).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영역성을 고려하게 되면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중 비행의 원인이 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비행이 자아존중감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도 그 성격에 따라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물비행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영역이나 비행의 유형에 따라 인과관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어떤 영역의 자아존중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비행에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밝히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성경 (2003).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487-510.
- 김준호 ·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희화 · 김경연 (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pp.15-24.
- 문화관광부 (2003). *청소년백서*.
- 유성경 (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201-217.
- 이경상 · 김진호 · 오해섭 · 김희진 · 김재민.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식 · 전신현 (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권 제5호, pp.173-198.
- 이춘화 · 윤옥경 (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rtz, S. (1998). *Sex, power, and the violent school girl*. Toronto: Trifolium Book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1173-1182.
- Belknap, J. (1996).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rezina, T. (1998). Adolescent maltreatment and delinquency: The

- question of intervening proces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5 No. 1, pp.71-99.
- Bursik, R. J. Jr., Merten, D., & Schwartz, G. (1985). Appropriate age-related behavior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dult perceptions. *Youth and Society*, Vol. 17 No. 2, pp.115-130.
- Chesney-Lind, M. (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 of female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Vol. 35 No. 1, pp.5-29.
- Chesney-Lind, M. (1997).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London: Sage Publications.
- Chesney-Lind, M., & Shelden, R. G. (1998). *Girls,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Belmont, CA: West/Wadsworth.
- Chow, G. C. (1960). Tests of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Econometrica*, Vol. 28 No. 3, pp.591-605.
- Chung, I.-J., Hawkins, J. D., Gilchrist, L. D., Hill, K. G., & Nagin, D. S. (2002). Identifying and predicting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Vol. 76, pp.663-685.
- Chung, I.-J., Hill, K. G., Hawkins, J. D., Gilchrist, L. D., & Nagin, D. (2002). Childhood predictors of offense trajec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9, pp.60-90.
- Covington, S. S. (1998). The relational theory of wom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R. T. Zaplin (Ed.), *Female offenders* (pp.113-131). Gaithersburg, MD: Aspen Publishers.
- Daly, K., & Chesney-Lind, M. (1988). Feminism and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Vol. 5 No. 4, pp.497-538.
- Dornfeld, M., & Kruttschnitt, C. (1992). Do the stereotypes fit?

- Mapping gender-specific outcomes and risk factors. *Criminology*, Vol. 30 No. 3, pp.397-419.
- Esbensen, F., & Deschenes, E. P. (1998). A multisite examination of youth gang membership: Does gender matter? *Criminology*, Vol. 36 No. 4, pp.799-828.
- Fagot, B. I., & Kavanagh, K. (1990). The prediction of antisocial behavior from avoid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Child Development*, Vol. 61, pp.864-873.
-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02). Male and female offending trajector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4, pp.159-177.
- Fergusson, D. M., Horwood, L. J., & Nagin, D. S. (2000). Offending trajectories in a New Zealand birth cohort. *Criminology*, Vol. 38, pp.525-551.
- Funk, S. (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n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26 No. 1, pp.44-68.
- Gilfus, M. (1992). From victims to survivors to offenders: Women's route of entry into street crime. *Women and Criminal Justice*, Vol. 4, pp.63-89.
- Gilligan, C., Ward, J. V., Taylor, J. M., & Bardige, B. (1988). *Mapping the moral domain: A contribution of women's thinking to psychological theory and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gan, J., Gillis, A. R., & Simpson, J. (1985). The class structure of gender and delinquency: Toward a power-control theory of common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pp.1151-1178.
- Hagan, J., Simpson, J., & Gillis, A. R. (1987). Class in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 Journal of Sociology*, Vol. 92, pp.788-816.
- Hagan, J., Simpson, J., & Gillis, A. R. (1988). Feminist scholarship, relational and instrumental control, an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9 No. 3, pp.301-336.
- Heimer, K. (1995). Gender, race, and pathways to delinquency. In J. Hagan & R. 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imer, K. (1996). Gender, interaction and delinquency: Testing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9 No. 3, pp.9-61.
- Heimer, K., & De Coster, S. (1999). The gendering of violent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7 No. 2, pp.277-312.
- Hien, D., & Hien, N. M. (1998). Women, violence with intimates, and substance abuse: Relevant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Vol. 24 No. 3, pp.419-438.
- Jang, S. J., & Thornberry, T. R. (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pp.586-598.
- Kaplan, H. B. (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7, pp.253-277.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avanagh, K., & Hops, H. (1994). Good girls? Bad boys?: Gender and development as context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In T. H. Ollendick & R. J. Prinz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6 (pp. 46-79). New York: Plenum.

- Liu, X., & Kaplan, H. B. (1999). Explain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mediating mechanisms, *Criminology*, Vol. 37 No. 1, pp.195-215.
- Luthar, S. S. (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ccoby, E. E. (1986). Social groupings in childhood: Their relationship to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 in boys and girls. In D. Olweus, J. Block, & M. Radke-Yarrow (Eds).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ur: Research, theories, and issues* (pp. 263-284). Orlando, FL: Academic Press.
- Mason, W. A. (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1, pp.83-102.
- Mearthy, J. D., & Hoge, D. R. (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pp.396-410.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 100, pp.674-701.
- Moffitt, T. E., Caspi, A., Rutter, M., & Silva, P. A. (2001). *Sex differences in antisocial behaviou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ntemayo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 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Vol. 53, pp.1512 - 1519.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pp.391-407.
- Patterson, G. R. (1996). Some characteristics of a developmental theory for early-onset delinquency. In M. F. Lenzenweger & J. J. Haugaard (Eds.), *Frontiers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81-12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G. R., & Yoerger, K. (1997). A developmental model for late-onset delinquency. In R. Dienstbier & D. W. Osgood (Eds.), *Th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4: Motivation and delinquency* (pp.119-177).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Pope, A. W., McChale, S. M., & Craighead, W. E.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 Rankin, J. H. (1980). School factors and delinquency: Interaction by age and sex.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64, pp.42-434.
- Rosenberg, F. R., & Ros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7, pp.279-293.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egel, L. J., & Senna, J. J. (1994). *Juvenile delinquency: The theory, practice, and law*. (5th edition). St. Paul, MN: West Publishing Company.
- Simpson, S. S., & Elis, L. (1995). Doing gender: Sorting out the caste and crime conundrum. *Criminology*, Vol. 33, pp.47-79.

ABSTRACT

Sex Role Stereotypes and Sex Differences in
Juvenile Delinquency

Chung, Ick-Joong*

This study addresses gender issues that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empirical research—sex differences in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mechanisms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stereotypes and delinquency. Data come from the first wave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dministered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in levels of delinquency. Boys and girls share common predictors and have a few gender specific predictors of delinquency. This study performs a Chow test for equality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s across male and female subsamples. Results of a Chow test indicate assuming that the same model parameters apply equally to both groups by pooling the data is more appropriate than treatment of the data as two different subsamples.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stereotypes and delinquency is mediated by self-esteem and aggres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mediating processes that girls experience are different from those that boys experience.

* Duksung Women's University

Girls who accept traditional sex role stereotypes were more likely to have low self-esteem. By contrast, boys who accept traditional sex role stereotype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elf-esteem. Implications for youth welfar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sex differences, delinquency, sex role stereotypes, self-esteem, aggression

투고일 : 4월 25일, 심사일 : 6월 8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